

“내 인생 첫 19금…수위 조절 힘든 작품”

tvN 새 수목극 ‘마우스’ 주인공 순수하고 어리바리한 순경 역할 무법형사 이희준과 살인마 추적 “19금, 의미 잘 전달하기 위한 선택”

“인생 첫 ‘19금’ 드라마!”

예능 무대를 누벼온 가수 이승기(34)가 2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왔다. 3일 방송을 시작한 tvN 새 수목드라마 ‘마우스’의 주연을 맡아 지난 연기 공백을 풀어낸다. 순수하고 어리바리한 순경 캐릭터로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뒤쫓으며 “이전에 보여주지 않은, 강렬한 ‘마라맛’ 재미”를 전할 각오다.

‘마우스’는 스릴러 장르를 표방하는 드라마. 이승기는 어두운 분위기에 극한의 긴장감을 강조한 드라마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굳은 로맨틱한 이미지를 잠시 내려놔다. 첫 방송에 앞서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승기는 “기존의 내 이미지를 떠올리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스스로 선택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승기는 법도 막지 못하는 ‘무법’ 형사 이희준과 한 팀이 돼 살인마를 추적한다. 드라마 곳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향후 전개될 내용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반전과 함께 연쇄살인사건을 통해

“잊기 쉬운 가치를 되새기자는 메시지”를 내걸었다.

제작진도 살인마의 행적을 담은 1회분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등 과감한 행보에 나섰다. 폭 넓은 연령대 시청자의 시선을 이끌어야 하는 초반부에 ‘19금’ 방송은 쉽지 않지만 이승기의 각오는 확고하다. 그는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드러내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출연자 모두가 수위 조절을 위해 일부 장면을 견어내면 ‘우리가 선택한 이유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사의 과감한 결정으로 의미가 빛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허당과 순수를 넘나드는 순경을 연기하며 “전혀적으로 떠올리는 ‘올바르다’는 이미지 안에서 주제적인 면모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이야기의 반전을 끌어가는 주인공으로서 “기존과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풀어냈다고 덧붙였다. 갖은 고생과 도전 끝에 내놓는 드라마가 “경력 중 가장 독보적인 작품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이희준의 남다른 존재감을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로 꼽았다. “이희준이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한다”고 말할 만큼 원했던 파트너이다. 이승기의 ‘구애’(?)에 이희준도 한 차례 거절한 대본을 다시 받아들였다. 이희준은 “이승기와 호흡은 100점 만점에 102점”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2년 만에 연기자로 돌아온 이승기는 “여느 드라마들과 결이 달라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야기”에 매료돼 어두운 스릴러 장르에 과감하게 도전했다. 사진제공 | tvN

연예뉴스 HOT 3

‘맛남의 광장’, 학폭 의혹 이나은 촬영분 최소화



에이프릴 이나은

멤버 간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 의혹 등이 제기된 걸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나은은 연일 제기된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편집되고, 광고도 중단됐다. SBS는 “4일 방송될 ‘맛남의 광장’에서 이나은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사그라지지 않아서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을 모델로 내세웠던 동서식품은 “자사 제품의 TV CF, 유튜브 동영상 광고 등을 최근 중단했다”고 밝혔다. 광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광고를 내렸다.

방탄소년단,美 빌보드 ‘아티스트 100’ 정상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이 팝스타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차트인 미국 빌보드 ‘아티스트 100’에서 또다시 정상을 차지했다. 빌보드가 3일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해당 차트에서 전주 순위보다 4계단 상승해 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이 이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것은 이번이 열여섯 번째다. 그룹으로는 최다이자 전체 가수 중에서도 테일러 스윙프(46회), 드레이크(31회), 위켄드(20회)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지난해 11월 발매한 ‘BE’는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무려 67계단이나 급상승해 7위를 기록했다.

모범납세자 조정석·박민영,국세청 홍보대사에



조정석

박민영

배우 조정석과 박민영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3일 국세청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1057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면서 두 사람을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위촉하기로 했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세무 조사 유예, 인천국제공항 내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실납세 덕분이며, 모범납세자는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이라고 밝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드라마는 잘 나가는데…지수 ‘학폭 의혹’에 비상

KBS2 ‘달이 뜨는 강’ 2회 촬영분 남아 하차 요구 여론에도 시청률 9.2% 찍어



지수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주연 지수(김지수·28)가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이면서 제작진에 비상이 걸렸다. 지수의 드라마 하차 요구가 쇄도하는 등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방송사와 제작사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논란은 2일 지수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를 학교폭

력(학폭)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학교 동창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비슷한 사례를 잇달아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지수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3일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메일로 직접 제보를 받아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취합하고 게시자가 허락한다면 의견을 직접 청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와 방송사도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사실 확인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서 논란의 여파는 최근 9.2%(2일·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달이 뜨는 강’으로 향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지수의 드라마 하차를 요구하며 그의 출연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KB S 시청자권익센터에 오른 지수의 하차 청원글은 2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제작진과 제작사, 방송사는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지만, 저마다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이날 촬영을 멈추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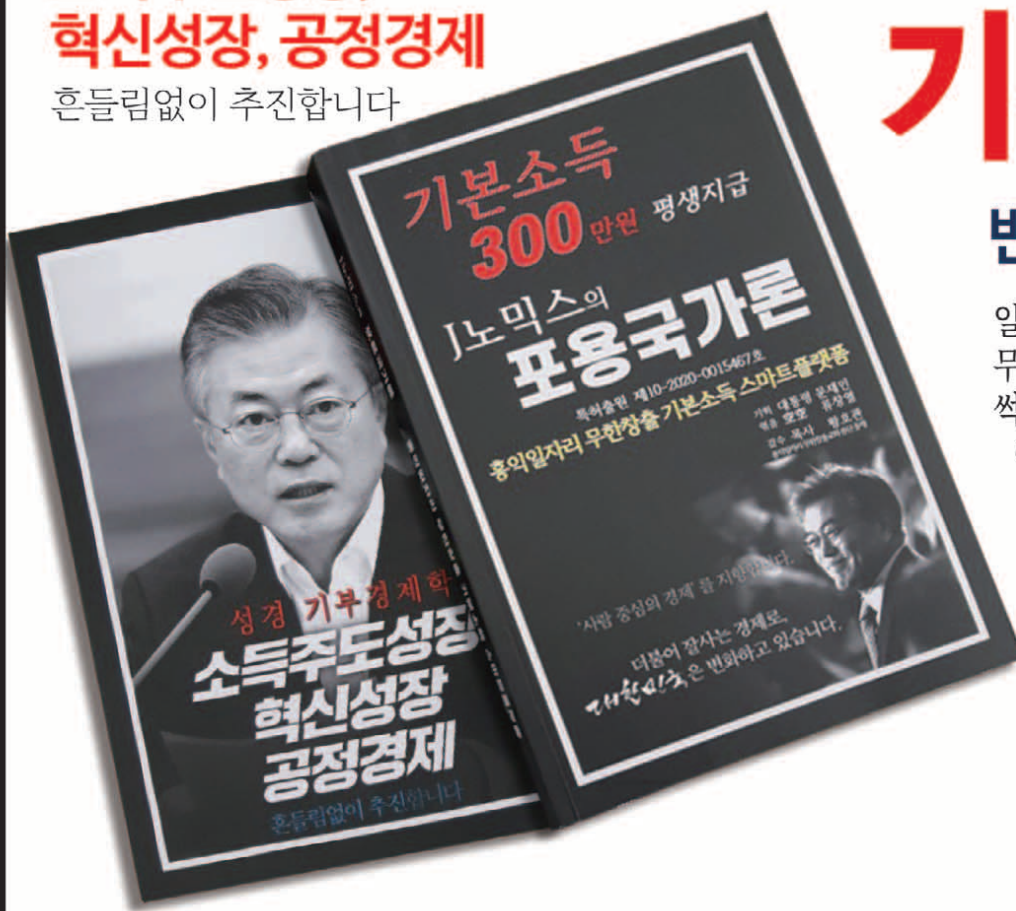
없어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미 막바지 촬영에 접어들면서 현재 2회 촬영분만 남아 있고, 지수가 주인공이어서 연기자 교체나 통편집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KBS에서도 지수의 하차와 드라마 방영 여부 등을 두고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앞서 KBS에서 각각 새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준비하던 조병규와 박해수에 대해 출연보류, 편성연기 등을 선택하면서 지수와 관련한 대책 마련 등 수습에도 분주하다. 당장 8일 방송부터 편성 여부를 재고해야하고, 논란이 거세지면 주연배우를 교체하고 촬영 분량도 모두 폐기하고 재촬영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나?**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묘야! 철밥통 관료들이!
씩을 때로 씹어 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아
이생망! 헬조선, 홀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네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홍익알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품앗이게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알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병술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만 010-47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서재훈 010-8770-2935 ● 대전 김진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98 / 선달민 010-2391-8259 ● 대구 신영희 010-48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백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영 010-6258-3510 / 오명숙 010-88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안 송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인천 허진석 010-4707-2659
● 한선희 010-5177-9479 ● 여주 상근명 010-8513-3833 ● 용인 김기명 010-6285-7653 ● 수원 황인드라마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대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베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우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화악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Hubuntu 1644-6733